

환각의 이율배반성과 구원의 배타적 낭만성

《달콤한 인생》《가장 멀리 있는 나》

공임순 | 문학평론가

최인호와 윤후명의 이번 신작은 모두 산문적 현실의 지속성과 시적 감성의 찰나적 현전이 만들어내는 전율의 서사시라고 할 만하다. 두 중견 작가의 달콤하면서도 애련한 생의 정조는 바로 이 산문적 현실과 시적 감성의 모순적 길항작용이 빚어낸 산물이며, 여기서 근대적 비애와 우울의 정조를 특징짓는 유토피아적 동경과 환상 혹은 환각의 미적 원리가 주조된다.

오랜만에 두 중견작가의 작품이 나란히 발표됐다. 20년 만에 여섯번째 소설집을 펴낸 최인호의 《달콤한 인생》(문학동네)과 윤후명의 《가장 멀리 있는 나》(문학과지성사)가 그것이다. 웅숭깊은 삶의 체취와 문학적 연륜이 빚어내는 그들만의 독특한 소설 세계는 “갈마가귀 울음에 산들 여위어가고 / 차 끓이며 끓이며 외로움도 향기에 젖는다”는 김현승의 시 구절을 문득 떠오르게 한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산모퉁이 길을 돌고 있는”(《가장 멀리 있는 나》) 그리고 “저 먼곳에서부터 높이뛰기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허공”(《이상한 사람들》)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이들의 황혼빛 시선에서, 생은 어느덧 시로 화하는 절묘한 경지가 열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생이 곧 시로 화하는 이 절묘한 경지를 달리 뭐라고 표현할 길이 내게는 없다. 시적 감성과 산문적 현실의 예기치 않는 만남을 통해 이들 작품의 미세한 결들을 드나들며 읽어내는 정공법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문적 현실은 만나고 헤어지는, 상처입고 입히는 우리네 지리멸렬한 사람살이 그 자체다. 매순간 찾아드는 사람살이의 이 슬한 부대낌들을 삭이고 또 견디다보면, 어느새 우리네 삶은 타성에 젖어 들고 하루는 ‘살아지는’ 것이 되곤 한다. 살다 보니 모든 고통과 상처는 잊혀지고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살아지는 것’(《가장 멀리 있는 나》)이라는 기막힌 운명의 역설을 수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산문적 현실이 세계 내적 존재자를 근거 짓는 소여적 조건이라고 할 때, 세계 내적 존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망각과 미망의 심연을 더듬는 일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문적 현실과 시적 감성의 절묘한 부딪침

하여 산문적 현실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립케 하는 동시에 인간의 소외를 가속화하는 이중 운동을 동반한다. 견고한 일상에 포획된 인간은 시간의 누적에 따른 사물화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존재의 안정성과 귀속감을 대가로 인간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산문적 현실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의 전면적 지배다. 이 지배적 형식을 한순간 섬광처럼 파열시키고, 생존의 일차원적 세계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 이른바 시적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보존의 일차원성을 너머 산문적 현실이 추방한 타자의 귀환은 물질적 소유욕을 부정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시적, 심미적 감성을 반드시 요구하게 마련이다. 두 중견 작가의 달콤하면서도 애련한 생의 정조는 바로 이 산문적 현실과 시적 감성의 모순적 길항작용이 빚어낸 산물이며, 여기서 근대적 비애와 우울의 정조를



《달콤한 인생》
문학동네/A5신/326면/8000원
《가장 멀리 있는 나》
문학과지성사/A5신/320면/8000원

특징짓는 유토피아적 동경과 환상 혹은 환각의 미적 원리가 주조된다.

최인호와 윤후명의 이번 신작은 모두 산문적 현실의 지속성과 시적 감성의 찰나적 현전이 만들어내는 전율의 서사시라고 할 만하다. 최인호의 《이상한 사람들》(산문)《몽유도원도》(달콤한 인생)이 그러하거나 윤후명의 《외뿔 짐승》과 《가장 멀리 있는 나》도 마찬가지다. 네가지 연작 형식의 《이상한 사람들》은 세계 내 경제에서 거부된 사람들의 낯설고도 기이한 사건들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다. 해풍과 햇살을 벗삼아 놀던 포구의 어린아이는 긴 항해 도중에 잠시 들른 늙은 선원(여기서의 선원은 먼 곳의 소식을 나르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선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 소설 속 인물의 신원이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들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다.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됐고, 어른이 된 아이는 시간이 안겨다준 망각과 미망의 늪에서 기이한 사람들의 아련하고도 애절한 생의 기억들을 건져 올려 독자들에게 나직이 들려주고 있다.

일상의 행복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포플

러의 대장간장이, 일상적 소통의 회로에서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기료 장수, 지상의 작은 집 한칸도 소유할 수 없었던 작은 노마 할아버지, 현실의 유용성과는 대척되는 존재의 진리를 찾아 평생을 떠돌아다닌 할아버지, 이들 모두의 박탈된 삶은 지상의 장소없음이자 세계 저편을 향한 방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상에 정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들 방랑과 유배의 삶이 무한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구원의 약속이 될 때, '산 것이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닌 취생몽사'(<<산문>>)의 전 우주적 관점이 존재의 유한성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토피아를 찾아 떠도는 외로운 유랑민의 행보

유목민의 정처 없음, 장소 없음 그 자체를 존재 미학의 차원으로까지 고양시킨 작가가 바로 유후명이다. 그는 유목민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재전유함으로써 새로운 인간학과 예술 미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유후명의 소설사적 궤적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유랑과 이산의 지형학은 그의 전 역사를 관통하는 저류며, 자전적 요소가 진하게 묻어나는 이번 신작도 예외는 아니다. 아버가 별이 돼 음악 소리를 내는 저 아득한 곳에서의 울림이 이미 그의 인생에 유랑과 이산을 예비하고 있었던 터, 험케열차부터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이르는 그의 벼랑 끝 도정은 삶과 인간의 존재 근거에 대한 탐색과 물음의 길찾기 혹은 길트기다.

누와라엘리아, 멕시코, 쿠바, 러시아, 칼미크를 횡단하면서, 그가 마주친 것은 초라하고 남루한 산문적 현실 그것이다. 이 시시콜콜한 사람살이의 집착에 정주자의 망각과 미망의 심연은 깊어만 간다. 시간의 누적이 안겨다주는 망각과 미망의 사물화를 받아들이 수 없는 자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선택이란 생존의 세계로부터 늘 달아나는 것 아니면 사라지는 것뿐이다. 그 '둔주(遁走)는 때로 저주'(<<외뿔 짐승>>)와도 같아서, 휴식과 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휴식과 정지를 현실로 구체화하는 순간, 망각과 미망의 심연이 우리를 포박해 정

“그들의 외로운 시선이 세계 저편만을 향하는 한, 현실의 중층적인 여러 매개들은 사라지고 다만 앙상한 동경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나는 고독한 투사가 되는 것이 나올 성싶다. 구원의 선부른 전도사가 되기보다는.”

주민의 물화된 삶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내적 존재로 일상에 안주할 수도, 세계 바깥으로 걸어 내려갈 수도 없는 자들은 유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유랑의 긴 행렬이 뿌리 뽑힌 자들의 상실과 박탈의 현상이면서, 동시에 정주민이 아닌 존재임을 증명하는 징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로움과 그리움은 사실 정주민이 아닌 존재, 이른바 유목민의 신체에 새겨진 화인(火印)과도 같다. 한 존재가 안주하고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외로움의 허기를, 다른 한편으로 그리움을 키운다. 외로움의 진폭이 넓어지면 그리움의 열망도 깊어지는 법, 때문에 유랑의 탈영토화는 재영토화의 욕망을 더욱 가속화한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이 모순적이고 때로 대립적인 운동이 환각 혹은 환상을 배태하는 원동력이 될 때, '세화를 향한, 유동제의 여인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가장 멀리 있는 나>>) 하얀 길의 환상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은 다름 아닌 부재와 상실의 현재에 대한 지독한 환멸과 허무다. 미가 파괴를 요구하듯, 동경은 상실된 과거, 잃어버린 낙원 의식을 그 내부에 독버섯처럼 안고 있다는 말이다.

현실에서의 실현 불가능성, 말하자면 상실과 부재의 절대성이 낭만적 동경의 비애를 추동시키는 이면의 그림자라면, 세화와 유동제의 여인과 아버지는 모두 그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의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한 대상일 터다. 세화는 죽고, 유동제의 여인은 비구니가 됐으며, 고향의 하얀 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사라짐으로써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이 도저한 폐허의 허망감이 역으로 유토피아적 동

경과 환상의 물적 토대가 되는 생의 아이러니를 그가 외면할 방도는 없다. 그는 폐허를 떠도는 방랑자의 장소 없음을 자신의 존재 징표로 삼고 있다. 상실된 고향의 하얀 길이 가장 먼 세상 끝에서 솟구치고, 현재의 고향으로 찾아드는 길은 외로운 산모퉁이를 돌아야 비로소 마주치리라는 전조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바다. 환상 혹은 환각의 이율배반성이 문제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서다.

현실과의 대립은 사라지고 앙상한 동경만 남아

환상은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차원의 삶을 짧은 순간 개방한다. 환상은 현실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잠복해서 견고한 현실을 뒤흔들고 교란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삶을 도래시킨다. 환상이 현실과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의 안에서 인간화된 세계를 극한으로 밀고 나가 그 한계지점을 응시하는 일이야말로 환상을 존립 가능케 하는 지반이다.

그런데 환상이 현실과의 모순적이고 때로 대립적인 긴장력을 상실한 채 초월의 한 계기로만 여겨지는 한, 환상의 혁명적 창조성은 소실되기 십상이다. 최인호의 <달콤한 인생> <몽유도원도>는 마니교적 선악의 이분법을 단선적으로 되풀이하며, 유후명의 <가장 멀리 있는 나> 역시 아버찾기에 고착돼 민족의 순수성과 동질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의 단적인 예다.

유목민의 자유로운 경계 허물기가 뿌리찾기(아버찾기)의 재영토화로 변질되는 순간, 환상은 구원의 배타성을 더욱 가중시킬 따름이다. 그들의 외로운 시선이 세계 저편만을 향하는 한, 현실의 중층적인 여러 매개들은 사라지고 다만 앙상한 동경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나는 고독한 투사가 되는 것이 나올 성싶다. 구원의 선부른 전도사가 되기보다는. ■

공임순씨는 서강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학사상>으로 등단했다.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를 펴냈다.